

JJIA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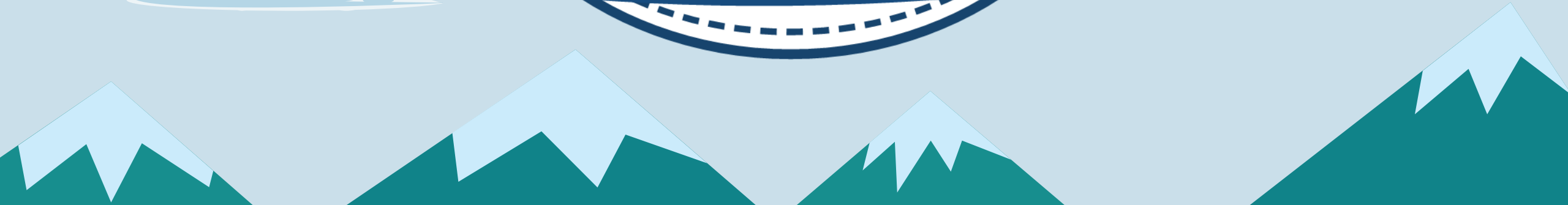
베트남 하노이에서 맞은 첫째 달



찌아오찌아오팀의

9월 보고서

우리가 함께한 9월, 그 속으로!





목차

 <p>START</p>	<p>두근두근 베트남 도착!</p>	<p>목차 1. 팀! 소개</p> 	<p>목차 2. 센터 소개</p> 	<p>목차 3. 라운아피 프로그램 준비</p>	<p>목차 3-1 교육 프로그램 준비</p> 
<p>October Coming soon!</p> 					<p>목차 3-2 동아리 기획</p> 
<p>목차 6. 개인에세이</p> 					<p>목차 3-3 베트남어 공부</p> 
<p>목차 5. 베트남 문화</p> 	<p>목차 4-4 우물전달식</p> 	<p>목차 4-3 한국문화교실</p> 	<p>목차 4-2 아동결연</p> 	<p>목차 4-1 번클 & 봉클</p> 	<p>목차 4. 센터 활동 참여</p>

피아오팀 소개



이 사 라

베트남 이름: Doan Trang

별명: 사쿠라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 혐의로
사라+ 구라를 붙인 말이다



한 중 교

베트남 이름: Huu Nhan

별명: 기복 치와와

주말만 되면 w곡선 아래로
내려가는 울상치와와..

찌아오팀 소개



이성연

베트남 이름: Thien Thanh
별명: 찌아오네 꽃족발
팀 경제위기 시, 집 앞 족발가
게에 팔 수 있는 든든한 족발
의 소유자



허재복

베트남 이름: Huu Phuc
별명: 허세복
한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요리
를 마치 백 번 만들어본 것처럼
이야기한다.



센터 소개



비전: 베트남의 새싹들과 젊은이들을 공의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지도자로
길러내어 베트남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한-베 양국이
두터운 정감으로 가까운 이웃이 되고자 합니다.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교육사업, 문화교류사업,
다애다문화학교



코디네이터 소개



오찬양 부지부장님



쩜 아임 간사님

JJIAO JJIAO TEAM



X2



X3



X5

라운아미 프로그램 준비

OK

1. 교육프로그램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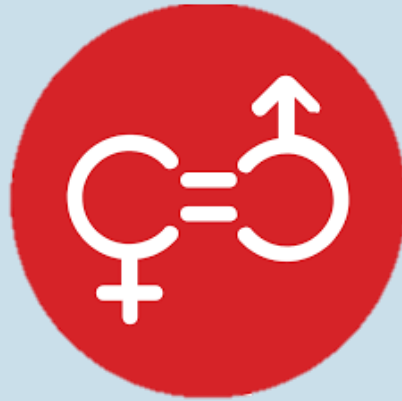


찌아오팀이 준비한 세 가지 주제:



경제

KB국민은행 플라리스에서 사용하는 교안을 사용하여 아이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르쳐줌.



성평등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슈퍼우먼'이 많은 베트남에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한국 문화

한국의 기본 정보, 화폐, 전통예절·놀이 등을 알려 주어 한국 문화를 체험한다.

1. 교육프로그램 준비



Step 1. 기획 및 PPT 만들기



1. 교육프로그램 준비



Step 2. 시연



간사님들 앞에서 실제로 강의하는 것처럼 여러 번 시연하고 피드백 받았어요



번역클럽에서도 한국문화 시연

1. 교육프로그램 준비



Step 3. 통역해 줄 베트남 대학생들과 최종 수정



베트남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 번 점검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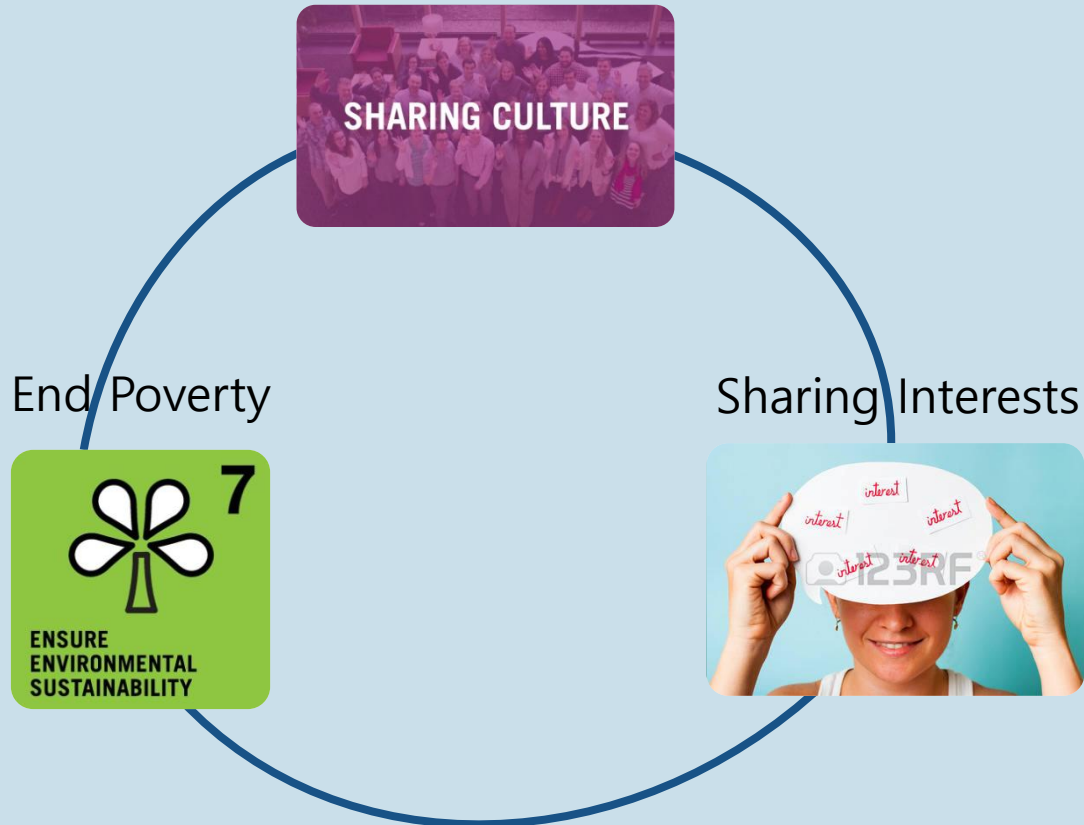


내레이션까지 도와주는 친구들

2. “아띠클럽” 기획



베트남 대학생들과의 교류 동아리 “아띠클럽”



주차	주제	방식	설명	비고
1주차	OT	Ice breaking	동아리 학생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 지는 시간	
2주차	Sharing culture	발표 & 토론	상대국가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 발표 및 내용 등 문화교류	PPT
3주차	End poverty	캠페인	빈곤퇴치 캠페인	
4주차	Sharing foods		요리 대결; 상대국가 요리 만들기	
5주차	알쓸청삶	발표 & 토론	노동문제와 해결방안 토론	PPT
6주차	하노이 탐방	여행	미션 수행	
7주차	350ppm	발표 & 토론	라운아띠의 주제 발표, 나의 탄소배출량 계산하기, 실천방안 논의	PPT
8주차	Sharing culture	영화감상		자막, 간식
9주차	End poverty	신무역 게임		
10주차	Sharing interests	난장토론	Ex) 환경, 빈부격차, 퀴어축제	
11주차	Sharing interests	발표 & 토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	
12주차	Farewell파티			



전체적인 피드백

- 감사님들의 피드백이 많아서 좋았다.
-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그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부족한 ppt내용을 보완할 수 있었다.
- 베트남의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사 라

경제, 성평등, 문화 교육을 준비하면서 간사님들과 봉사클럽, 번역클럽 친구들의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베트남 문화에 맞게 수정하고, 베트남 학생들이 주제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맞춰가다 보니 한국과 베트남의 생활·문화 차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활동을 도와주러 온 봉사클럽, 번역클럽 친구들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들 덕분에 교육활동 기획을 마무리 할 수 있었고, 더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베트남의 상황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를 기획한다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 하나 간사님에게 물어보며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다 준비한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시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에 대해 피드백과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차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프로그램을 베트남에 맞게 만드는 것이 쉽진 않지만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꺼이 시간을 내주시는 간사님들과 베트남 대학생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성 연

교육프로그램 준비 소감문



교육프로그램 준비 및 시연을 하면서 내가 그 수준에 맞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한 내가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나 내용 숙지, 강의의 흐름 등등 많은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아직 성평등은 저학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되었다. 강의에 대한 흐름이나 내용설명과 같은 것은 특히 성평등보다 경제교육이 더 부족한 것 같다. 성평등은 우리가 피피티를 만들어 활동을 많이 넣고해서 덜 지루하게 할 수 있는데 경제교육은 내가 피피티를 안 만들어서 '어떤 활동적인 것을 넣어야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안 지루할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경제교육은 내가 설명하면서도 조금 지루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꿔갈지는 나에게 달렸지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한다. 또한 그래서 지금 9월이 지났지만 대본을 만들며 어떻게 내용을 정리해야 될 지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동아리를 기획하였는데 동아리도 기획하고 교육프로그램도 기획하면서 '아 진짜 이제 우리가 기획하는 라온아띠 활동이 시작 되구나' 를 더욱 느끼게 되었고 빨리 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허재복

우리의 9월을 온전히 쏟아 부은 교육프로그램 기획과 ppt 제작 및 시연, 그리고 피드백 후 수정. 우리의 9월은 이 활동의 반복이었다. 그래서 처음의 그 설렘은 점점 지겨움과 피곤함으로 바뀌었고 마치 전역일을 기다리듯 기약 없는 10월을 기다리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간사님들의 조언과 번역클럽, 봉사클럽 친구들의 피드백을 받았고 그 후에 우리의 프로그램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좀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제 10월이니 우리가 준비했던 것을 최선을 다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좋은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한중교

3. 베트남어 공부



화, 목 1시간 30분씩
베트남어 수업



타오 선생님과 포토타임



베트남어 소감문



이 사 라

지역훈련 때 베트남어를 배우긴 했지만, '그때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건 나만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시는 분께 직접 배워서 그런지 안산에서 배웠던 발음이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주셔서 금방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에 흥미를 갖고 수업에 임했는데 몇 차례 지나고 나서 흐트러지는 나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마음 잡고 공부할 수 있었고, 집중 할 수 있게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선생님께 감사했습니다. 베트남어를 좀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안산에서 베트남어를 배우긴 했지만. 워낙 언어가 어려워 감이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현지에서 살다 보니 배운 것을 활용하고 조금이라도 더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있으니 이제 점점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타오 선생님도 재미 있으시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셔서 저에게 베트남어 수업은 다른 일에서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추석 때는 우리를 생각해주셔서 자신의 고향에서 가지고 온 베트남 전통 빵도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에 딱 한 차례 수업만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아쉽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실 우리 센터는 의사소통이 거의 다 한글이기 때문에, 더 더욱 노력했어야 했는데 적응한다는 핑계로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교육을 나가기 시작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베트남어 실력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성 연

베트남어 소감문



베트남어를 지금 안산에서부터 지금까지하면 약 2달째 배우고 있지만 아직 나의 베트남어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또한 여기서는 수업을 영어로 하여서 나에게서는 조금 힘들었다. 하지만 내가 영어를 못해서 조금 더 선생님과 베트남어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영어가 안되어서 조금 긴 것을 물어볼 일이 있다면 성연이 누나를 통해 물어보거나 아니면 안 물어보기도 하였다. 그래도 이렇게 베트남어로 이야기를 조금씩 하면서 음식에 관한 베트남어는 조금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아직 많이 많이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허재복

매주 화,목 우리의 오후를 책임져 주었던 타오 선생님과 베트남어 수업. 안산에서 3주동안 베트남어를 배웠지만 거의 배우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에 우린 선생님께 알파벳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소개를 할 정도는 되었다. 아직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그리고 아쉽게도 보고서를 내는 이번주가 베트남어 수업의 마지막주라서 베트남어를 혼자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내가 4개월 동안 베트남어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팀원들을 부여잡고 끌려가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다.



한중교

JJIAO JJIAO TEAM



X2



X3



X5

센터
활동 참여

OK

1. 번클 & 봉사클



번역클럽 & 봉사클럽

1. 번역클럽 : 매주 목요일날 베트남 대학생들이 번역과 수업을 듣는 동아리 (중교&성연)

1. 번클&봄클



번역클럽에서 진행한 한국문화수업



1. 번클&봉클



두분 행복하세요♥



해치지 않아요...



1. 번클 & 봉클



번역클럽 & 봉사클럽

2. 봉사클럽 : 매주 화요일날 베트남 대학생들이 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동아리(재복&사라)

1. 번클&봉클



봉사클럽에서 진행한 베트남 음식 만들기



1. 번클&봉클



대망의 1등!!!





전체적인 피드백

- 봉사클럽, 번역클럽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 학생들이 베트남어로 대화할 때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했다.
- 우리가 먼저 다가가려 하지 않고 학생들이 먼저 다가와주기를 바랐던 점에서 서로가 노력해야 할 것 같다.

1. 번클 & 봉사 소감



이 사 라

처음에 많이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대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좋았고, 번역클럽에서 우리가 기획한 한국문화수업을 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대학생 대부분이 한국어 과여서 지루해 할 줄 알았는데, 다들 관심 있게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봉사클럽에서 베트남 친구들과 베트남 음식을 같이 만들고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리활동을 통해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직 교육을 나가지 않아, 여러 베트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번역클럽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다가와주지 않아서 당황했습니다. 그 날 밤에 출국 전 캠프 때,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현지인들이 당연히 먼저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기억나 다음 시간에는 제가 먼저 다가가고 서로 노력하니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번역클럽에서는 조끼리 토론을 한 후, 마지막에 다 모여 발표를 하는데 하루는 한 조가 자신들의 고민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며, 베트남 대학생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친구와는 많이 가까워져 주말에 같이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성 연

번클 & 봉사 소감문



봉사클럽에 참여하면서 나의 또래 베트남 대학생 친구, 형, 누나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베트남에 가기 좋은 곳도 알려주시고 하셔서 감사했었다. 또한, 한국어를 진짜 잘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2번의 강의를 있었는데 그 안에는 어려운 한국어도 있었고 내가 대학교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어려운 내용도 있었는데 잘 이해하는 것 같아 놀라웠다. 또 한번은 베트남요리 만드는 일에 참여했었다. 그 전에는 많은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젤리 같은 것을 같이 만들면서 내가 어디 살았는지, 또 한국에 대한 이야기, 또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 등등 봉사클럽의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다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먼저 이들과 많이 먼저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허재복

맨 처음 번역클럽과 봉사클럽을 선택하기 전 우리 4명은 다같이 번역클럽과 봉사클럽에 참여한 뒤 2명씩 어디로 들어갈지에 대해 결정하였다. 솔직히 번역클럽에 참여했을 때는 베트남 친구들이 너무나 한국어를 잘해서 놀랍기도 했고 그들이 한국어를 베트남어로 번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걸음마 수준인 나의 베트남어로 이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나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봉사클럽으로 가고 싶었지만 팀원들과 회의 끝에 나는 지금 번역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걱정했던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그들이 번역할 때 의미가 어렵거나 헷갈리는 한국어를 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나는 그들에게 베트남어를 물어보기도 하면서 조금씩 나도 모르게 쌓아올려진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아직 한 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친구들이 우리의 교육프로그램에도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기에 조금 더 마음이 많이 가고 한국에서도 인연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벌써부터 든다.



한중교

2. 아동 결연



아동결연

1. 방문 횟수 : 3번

2. 목적:

한국인과 베트남 아동들을 1:1 결연을 맺어주어 베트남의 새싹들을 미래의 재목으로 양육하고자 한다.

2. 아동 결연



3. 첫 번째 방문

첫 번째 방문 때에는 길가에서 녹차장사를 하는 어머니와 아프신 아버지를 둔 한 아동을 만났습니다.

4. 두 번째, 세 번째 방문

첫 번째와는 다르게 두 번째, 세 번째에는 많은 아동을 만났습니다. 또한, 직접 그들의 집에 방문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2. 아동 결연



2. 아동 결연



전체적인 피드백

- 우리가 준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동을 만나다 보니 아동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지 못해 아쉬웠다.
- 직접 아동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아동 결연 소감문



첫번째 아동결연방문을 가면서 하노이의 다른 곳을 볼 수 있고 그 길의 풍경을 보면서 베트남을 더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아동결연을 갔을 때 아동결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후원금을 꼭 받아야 하는 아이에게 그 후원금이 전해지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일을 하는 간사님들이 멋져보였다. 또한 직접 아동을 만나러가서 아동에게 이런저런것도 물어보고 아동의 어머니와도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며 간사님들이 멋지게 보였다. 또한 나도 나중에 베트남어를 잘하게 되어서 물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번째 아동결연은 나랑 성연이누나랑 프영간사님과 하루종일 진행되었었고 두 번째 아동결연때에는 많은 아동들과 집 안, 밖의 모습, 집안 사정들을 듣게 되어서 첫 번째 보다 더 베트남의 빈부격차에 대해 느끼게 되었고 또한, 베트남어로 아이들과 간단한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아동결연을 다녀와서의 다짐을 지키게 되어 그 점에서 조금 뿌듯하였다.



허재복

아동결연을 따라다니면서 처음으로 미딩지역을 벗어났었다. 그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래서 하노이의 이면을 본 것 같아 더욱 생각할 것이 많았던 것 같다. 그리고 직접 아이에게 간사님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학교생활은 잘 지내고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후원금도 직접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놀라웠다. 나는 후원금을 아이의 계좌나 아이의 부모님 계좌로 넣어주는 줄 알았었다. 그래서 후원금이 굉장히 투명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에는 나랑 사라가 같이 갔는데 그땐 짧은 베트남어로 우리가 아이에게 인사하고, 이름을 물어봤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와 함께 한 이야기를 적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우리를 낯설어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걱정도 했지만 아이들이 너무나 반겨주어서 내가 더욱 힘을 받았던 시간인 것 같다. 그래서 남은 4개월 동안 만나보지 못한 아이들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중교

2. 아동 결연 소감



이 사 라

아동을 만나면서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로 시작하여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실히 살아가는 아동과 그의 어머니를 보면서 그러하지 못한 내 삶을 반성하게 되었고, 후원금을 전달하였을 때 그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간사님을 통해 후원아동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과정을 들을 수 있었고, 뜻밖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간사님들의 대처하는 방법을 듣게 됨으로써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게 되는 유익한 시간과 경험이었습니다.

아동결연 방문은 제가 가장 많은 것을 배운 활동이었습니다. 아이가 살고 있는 환경에 직접 가보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고민들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 중 한 집은 아동결연후원을 오랫동안 받아, 지금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원래 원칙대로라면 그녀에게 후원금을 주지 않는 게 맞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후원자의 의사를 물어보고 지금도 계속 후원을 받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우리가 떠날 때, 조심스럽게 간사님에게 자기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니 후원이 필요한 다른 아동에게 후원을 양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장학금을 여러 번 받은 입장으로 그 아이의 심정이 이해가면서도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이 넉넉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 성 연

3. 한국문화교실



한국문화교실 (신부교실)

2주 동안 한국문화에 대해 수업을 받고
결혼 후 한국 정착에 도움을 주는 사업



3. 한국문화교실



신부님들과 함께 문묘 탐방



한국에서 행복하세요♥



4. 우물전달식



우물사업 후원자님들과 하이즈엠에 있는
초등학교 3곳, 유치원 1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이들보다 더 신난 사라단원

우물전달식 소감문



우리의 첫 활동은 우물전달식이였다. 이때 하노이가 아닌 다른지역인 하이즈엉으로 가면서 처음 하노이가 아닌 다른 지역을 볼 수 있었고 또한 우물전달식전에 아이들과 소통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베트남어가 안되어서 아이들과 소통하지 못하였고 베트남어가 안되어서 답답하였다. 그래서 이때를 계기로 베트남어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 활동을 나갔는데 베트남 아이들과 조금이나마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



허재복

한국에서 오신 교회의 관련자 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우물을 증정해준 학교를 갔다. 솔직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나로서 처음에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학교를 가서 직접 베트남 아이들을 만나보니 그러한 마음이 사라졌다. 우리가 신기했는지 아이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고 장난도 쳤다. 하지만 베트남어가 미숙하다 보니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많은 아이들이 한 번에 얘기하고 장난도 치니 점점 지쳐가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하러 나가게 되면 이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솔직히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찍은 사진을 보니 좋았던 점이 훨씬 많아서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중교



이 사 라

처음 도착한 동이엔 초등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대화는 어려웠지만 간단한 영어와, 몸 동작으로 표현하며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과 어울릴 때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며 장난치고 놀다 보니 서로에게 거리감 없이 대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베트남 어린이들을 만나는 시간이어서,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 우리의 베트남어 실력이 부족해 아쉬웠지만, 그래도 언어로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베트남의 도시만 보다가 정겨운 시골 모습을 보고, 행사 이 후에는 현지 선생님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활동 중이어서 술을 마실 수 없었지만, 물 뿐이어도 계속 건배를 권하시는 모습에서 베트남의 문화 한 부분을 가까이 볼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이 성 연

JJIAO JJIAO TEAM



X2



X3



X5

베트남 문화 탐방

OK

문묘 탐방



같이 간 사람들: 한국문화교실
신부 & 간사님



문묘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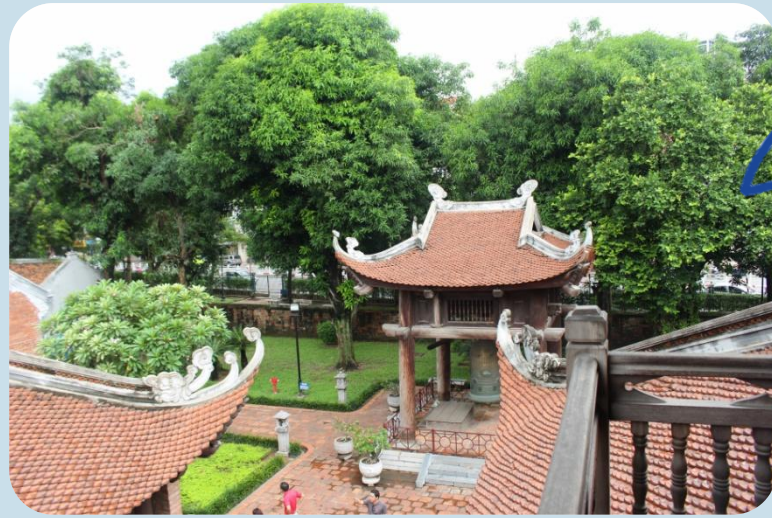
숨은 그림 찾기?!



문묘 탐방



갑자기 비가.....ㅏㅏ



이때 까지만 해도.....
화창했는데...





허재복

문묘는 우리가 베트남에 와서 2번째 주말에 갔던 곳이다. 문묘에 가기 전에 문묘는 우리나라로 치면 성균관대와 비슷한 곳이라는 설명을 듣고 갔었다. 문묘를 갔을 때 phượng 간사님께서 설명해주시지 않았더라면 문묘의 생긴 모습만 알고 갔었을텐데 phượng 간사님께서 같이 다니면서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또 수학여행으로 많이 온다고도 하셨고 졸업 사진도 많이 여기서 찍는 다는 것 등등을 말해 주셔서 좀 더 베트남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한 문묘안에 있는 거북이모양 돌에 대한 것, 문묘 안의 한 건물안에 있던 황제 동상에 대한 것, 동전을 던져 둔 곳이 있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들어온 문화라는 것 등등 많은 것을 말해 주셔서 문묘에 대해 많이 알게 된 시간이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문묘라는 곳이 베트남 최초의 대학이었고, 하노이를 대표하는 유적지여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문화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의 문화에도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유사하면서도 베트남만의 정서가 담겨져 있는 문묘를 탐방할 수 있어서 유익했고, 베트남의 문화를 이해하고 더 알아가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이사라

문묘 탐방 소감



이성연

베트남에 도착하고 난 후, 첫 베트남 유적지가 문묘였습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문화교실 신부들과 동행하였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도록 하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보기에 우리나라의 옛 건축물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후에 문묘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역사도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유사한 점을 찾을 때마다 베트남이 더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한종교

하노이에 와서 처음으로 베트남의 유적지를 가게 되었다. 문묘는 센터의 신부교실의 신부님들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같이 기념사진도 찍으면서 조금이나마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문묘를 돌아보며 한국과 베트남의 유교문화를 비교할 수 있어서 좋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베트남도 한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며 두 나라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문묘에 다녀온 뒤 센터에서 박사님의 설명을 듣고 문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내가 그냥 지나쳤던 건물이나 비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다.

우리끼리 하노이 탐방



호안끼엠

1. 호안끼엠이란

호안끼엠에는 호수, 야시장이 있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않아서, 날이 적당
해서' 가기 좋은 하노이의 핫플레이스!

2. 인도차이나

여기는 하노이의 복합쇼핑몰이다



우리끼리 하노이 탐방



호안끼엠



연인들끼리 많이 가는
호안끼엠 호수!!
라던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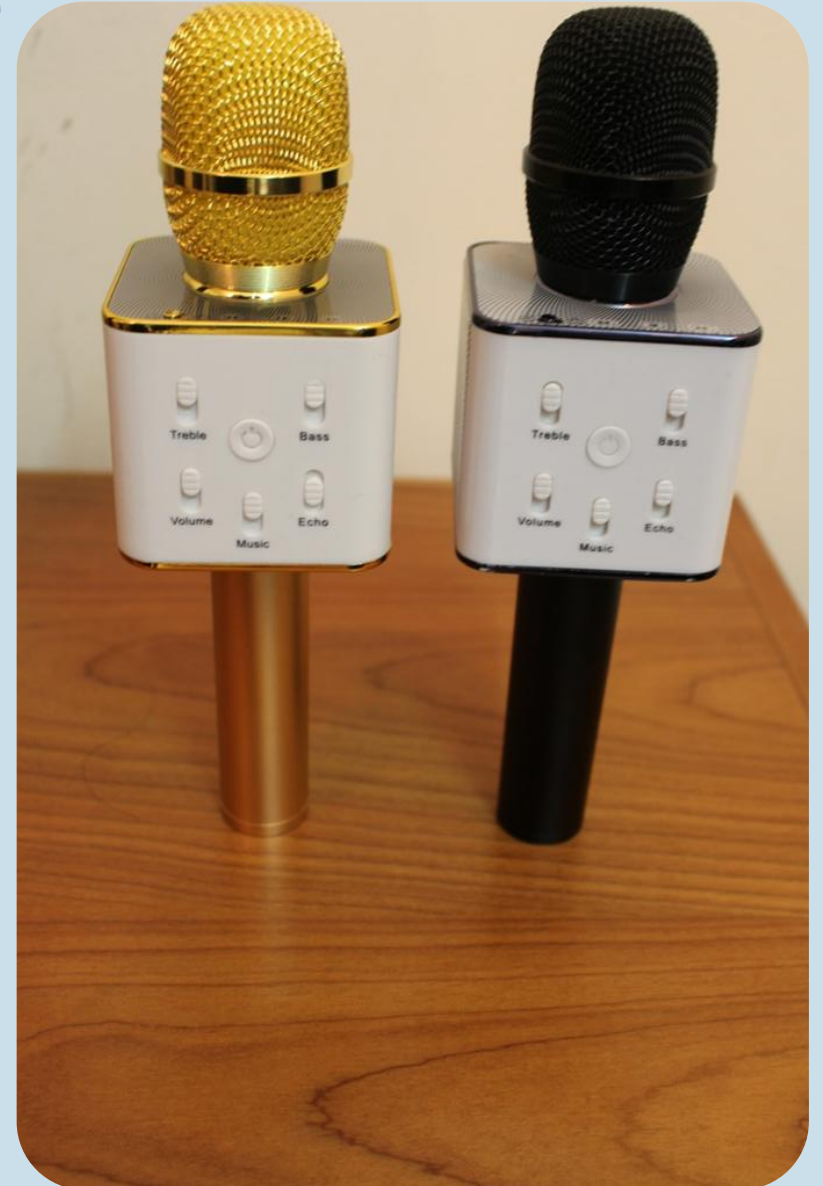


우리끼리 하노이 탐방



호안끼엠

서툰 베트남어로
흥정해서 산 마이크



우리끼리 하노이 탐방



성연이는 아파서 같이 못 온

인도차이나



우리끼리 하노이 탐방



성연이는 아파서 같이 못 온

인도차이나



베트남 음식점이라면 다 있는
번창을 기원하는 'Bàn thờ',
한국의 '향'과 비슷해요.

FOOD



베트남 기본 음식 쌀국수
점심시간에 앞 가게에서 배달시켜요.
1500원이면 누구나 시켜 먹을 수 있어요.



베트남 궁중요리 '훼' 코스요리
감사하게도 센터 후원자님이 사주셨어요.

FOOD



신서유기에도 출연한 베트남 전, 반세오
매력뽐뽐!!@-@



바삭한 쌀튀김과 고소한 갈비죽이 어울려진
베트남 죽, 찌오(chao)

FOOD



쌀국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의 점심메뉴, 분짜



베트남 3대 커피 중 하나인 코코넛밀크커피!
베트남 관광 필수 코스: 콩카페

FOOD



봉사클럽에서 만든 베트남 갈비요리
짭조름하면서도 달달



추석 때 선물하는 문케익
달달해서 문 케익인가..ㅎ

10월 예고편!!



10월 보고서 예고편!!!

**재복이가 이렇게 입은
이유는?!?!?!?!?!?!?!?!?!?!!**

11월에 공개됩니다!!!!!!





한 중 교

벌써 9월보고서를 써야 된다고? 베트남에 처음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너무 도시였던 하노이의 야경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벌써 9월보고서를 써야 한단다. 역시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간 것은 아니었다. 첫 1~2주 동안은 재복이와 둘이 자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고, 우리 5개월 어떻게 버티냐고 얘기했었다. 그런데 점점 센터에 적응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다 보니 벌써 10월이 되었다. 그래서 가끔씩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가 하노이인지 내가 살았던 원주인지 헷갈릴 때도 있다. 원주보다는 하노이가 더 큰 도시지만..... 이렇듯 하노이는 정말 큰 도시이다. 어디를 돌아다녀도 건물을 올리고 있는 공사장은 길가에 수두룩하고 차와 오토바이는 엄청나다. 그래서 양간사님이 우리에게 출국 전 말씀하신 얘기가 생각났다. 너무 도시여서 더 걱정된다는 말씀. 그런데 사람이 굉장히 간사한 것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라온아띠스럽게 행동하자고 다짐했지만 적응이 끝나자 한국에서 사는 것과 똑같이 살고 있는 모습에 보고서를 쓰고 있는 지금 다시 국내훈련에서 배웠던 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본다. 죄송합니다. 간사님들... 국내훈련 워크숍북을 다시 펼쳐야 겠네요...



10월부터는 꼭 지키도록 노....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달이었지만 생각보다는 많은 활동을 한 것 같다. 처음 보고서를 써야 한다고 했었을 때 한 게 없는데 무슨 보고서를 써야 하나 굉장히 막막했는데 한 장 한 장 PPT를 만들다 보니 그래도 꽤 많은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는 10월의 보고서 PPT에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지 궁금하기도 하다. 벌써 10월 보고서를 쓰고 있는 우리를 상상하긴 싫지만.... 우리가 베트남에 온지 딱 한 달이 되었던 10월 6일 나눔에서 나는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나는 조금의 성장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얘기했었다. 그래서 더 조급하다고.. 분명 출국하기 전 캠프에서는 성장의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생활하고 오겠다고 얘기하고 다짐했는데 막상 베트남에 오니 욕심도 나고, 한국에서 친구들이 취업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 5개월을 잘 보내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조바심이 났나 보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나는 주말마다 기분이 다운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주말에 12시가 넘어서까지 잠을 자는데도 피곤은 풀리지 않았다. 아마 그 조바심 때문에 정신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몸은 지쳐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다시 다짐하려고 한다. 간사님들의 말씀처럼 5개월 베트남에서 잘 살지 말고 그냥 살고 오자고. 그래서 지금의 바람은 10월 보고서를 쓸 때의 나는 그러한 조바심을 벗은 정신과 몸이 지쳐있지 않은 상태였으면 좋겠다.

성연's 개인에세이



이성연

친구나 가족들이 나에게 ‘잘 지내?’라고 물어보면 저는 만만치 않다는 대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한 달간의 베트남 생활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또,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껏 만나보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베트남 사람 자체를 만난 적도 별로 없지만, 한국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결혼이주여성들, 마약중독자였던 사람들 그리고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편견이 그 중 하나입니다. 그 동안 저에게 결혼이주여성들은 ‘피해자’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또는 의해 희생되거나 한국 드라마나 중매자의 말에 속아 한국에 오는 여성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문화교실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제가 가지고 있던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이미지는 틀린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남편과 사랑을 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각자의 러브스토리가 존재했습니다. 이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은 겉으로 보기에 나쁘지 않은 생각이지만, 한국 지역사회에 어엿한 한 일원인 그들에게는 이러한 시선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며 반성이 들었습니다.

성연's 개인에세이



지난 한 달간,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경험은 아동결연 방문입니다. 이제까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또는 제 3자로부터 들었었는데, 방문 때에는 아이들과 그들의 보호자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좋은 일부터 소소한 어려움까지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도 그 전에 방문한 집들처럼, 들어갈 때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했습니다. 아이는 부모 양쪽을 잃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랑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고 또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빛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종일관 웃으면서 기뻐던 일들을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자신의 사진을 신나게 보여주며 최근에는 봉사동아리에 들어가 재미있게 보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어떻게 이렇게까지 밝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이 아이의 경제적 상황은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더 안 좋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최근에는 아이의 이모가 이혼을 하고 이 집에 들어오려고 했지만, 집도 좁고 자기가 죽고 나서 이 아이를 돌보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을 말렸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울먹이시면서 자신의 딸에게 자살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들으며 할머니도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이 괴로우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는 밝았고 더 나아가 남을 도왔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아이가 이렇게 밝을 수 있는 이유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가 녹음할 때면, 자기는 집 밖에서 나가 거리에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시는 것을 보며 손녀를 많이

성연's 개인에세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경제적 환경도 좋은 교육도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아동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교육에 관심이 있던 저에게 이 만남은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환경에 사는 아이들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음에도 이 아이를 만나며 놀라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며 씩씩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장 만만치 않았던 점은 저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팀원 3명과 모든 일을 함께하다 보니 제가 이전까지 숨길 수 있던 모습 그리고 저도 모르던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 스스로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전 예전처럼 확신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내 지역 훈련 때, 우리 팀은 단 한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서로 기분이 상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 팀에 대한 저의 마음은 걱정 반, 뿌듯함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 온 지 얼마 안되었을 때부터 저를 중심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겪으면서 저는 제 생각보다 모난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팀원과의 갈등보다 저의 모난 부분을 보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 동안 어떤 그룹에서 제 중심으로 갈등이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저의 모습을 받아드리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뭔가 내가 없어야 팀 내 모든 일이 수월하게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제가 이 팀에 필요한 존재인지 아닌 지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팀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저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갈등을 항상 좋은 방법으로 표현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갈등표현은 나눔 때 했고, 다른 팀원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기분 표현이 중심이었습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느낀 감정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는 아니더라도 이해해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갈등을 겪으며 올바른 표현을 제 때 하는 것이 어렵지만,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갈등을 잘 해결해 온 우리 팀이 대견하고 고마운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발견한 부분은 문화의 차이였습니다. 저 나름대로 한국에 3년 살았고 방글라데시에 오래 살긴 했지만 한국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16년 산 것치고는 한국 문화를 많이 알고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 지켜보면서 나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어른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우리 팀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 분위기가 한국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이 점이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불합리적이면 저는 바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팀원들의 생각은 저와 조금 달랐습니다. 어른이기에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하고 할 말을 하더라도 좀 기다렸다 돌려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이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존중 받아야 하는데, 저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이런 태도는 고쳐야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센터 직원에 대해 더 알아가며, 제가 처음에

성연's 개인에세이



가졌던 이미지와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로 이야기했다면, 이러한 면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나 문화가 팀원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조금 더 한국문화를 저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해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안산에서 배운, '틀림이 아닌 다름'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번에 발견한 저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사실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 속에서 저를 더 알아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하는 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나름 괜찮은 사람이 되기 보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허재복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언제나 결론 없는 재복이의 한달 간의 베트남 생활기!!

#출발_언제나_처음은_설레지

출국 전 캠프를 마치고 공항으로 갔을 때 느낌이 이상했다. 다 이제 5개월 후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아쉬웠고 또 '진짜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며 실감이 안 났었다. 또 한팀, 한팀 헤어질 때마다 실감이 나기 시작하였고 또한 이제 우리가 필리핀팀과 인사하고 비행기 탈 시간이 되었었다. 그렇게 베트남에 도착하였고 처음에 차를 타고 숙소로 가던 그 밤거리가 아직 기억에 남는다.

#베트남의_신기방기한_점들

난 여기서 제일 신기했던 점은 핸드폰을 공기계를 먼저 구해서 유심을 꽂아서 쓰는 점에 많이 놀랐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신사를 가서 가입하고 만들지만, 베트남은 그렇지 않았다. 또한, 요금도 한 달 단위가 아니라 그냥 돈을 충전해서 쓰는 것이라 또 놀라웠었다. 또 오토바이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모닝을 잘 안 타지만 여기서는 모닝이 엄청나게 많았었다. 대부분 택시 중 작은 택시는 모닝이 많았었고 여기에서 택시들은 기어가 자동인 택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같다. 또 하나의 베트남의 빈곤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은 교통법규(?)의 빈곤이다. 여기에서는 차도 차선을 잘 지키지 않는다. 그런 점을 보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 또 하나는 분리수거를 안 한다는 것이 새로웠다. 우리는 당연한 듯 유리병, 페트병, 종이, 음식물 다 따로 버리지만 여기는 한꺼번에 버린다는 것이 새로웠고 또한 쓰레기봉투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는 시, 군마다 쓰레기봉투가 다른데 여기는 그냥 까만색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리면 된다는 점이 새로웠었다.



#한국인가?_베트남인가?

베트남에 지금 1달째 살고 있지만 내가 베트남에 살고 있는지 실감이 안 날 때가 많다. 이러한 고민은 국내훈련 중 안산에서도 계속했었다. '여기가 안산에서 살고 있는 건가?' 와 같은 고민을 했었고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 든다. 분명 간판과 그런 것은 베트남이지만 뭔가 내가 이제 베트남에 살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많다. 근데 한편으로는 꼭 그런 여기가 어떤 지역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꼭 안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그냥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잘 살아가면 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한다.

#베트남어... Có lên!!!

내가 베트남어를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을 느낀 것은 처음 우물증정식을 따라갔을 때이다. 이때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아이들이 어떤 것을 물어봐도 내가 대답할 수 없고 계속 미안하다는 말 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에 나도 답답하였고 진짜 열심히 해서 대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1달째 지내고 있지만, 아직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고 해도 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았다. 그래서 더 걱정되고 조바심이 나기도 한다. 지금은 먹을 것에 관련한 질문이나 간단한 안부인사만 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번에 좋았던 것은 베트남어 선생님과 잠깐 베트남어로 대화했다는 점이 너무 좋았고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일인 것 같다. 좀 더 열심히 해서 베트남어 응용능력을 늘려 다음 달에는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더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Có lên!!!



베트남 음식

나는 베트남 음식이 너무 입에 잘 맞는다. 이번에 베트남에 와서 못 먹는 음식은 없었고 딱 입에 안 맞는 음식은 2개가 있었다. 그것 빼고는 너무 잘 맞아서 살이 찐 것 같다. 뱃살이 나왔다.... 또 베트남 음식을 먹을 때에는 물가가 싸다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한식을 먹을 때에는 돈이 너무 비싸 보이고 뭔가가 먹기가 꺼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한식을 먹을 때도 기분이 좋아져서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내가 이때까지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은 3가지가 있다. 하나는 베트남 볶음밥(phem)이고 하나는 분차이고 하나는 분보남 보이다. 진짜 베트남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이 3가지를 난 추천하고 싶다. 하지만 맛나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먹어보는 게 좋은 것 같다! 나중에 한국에 가면 또 베트남 음식이 많이 생각날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고민인 것이 배도 나오고 살이 많이 찼다.....

Thầy_phúc!!(복선생님)

곧 있으면 이런 말을 들을 것이다. 이번 달은 대부분 교육프로그램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냈었다. 처음 아이디어 기획회의부터 그래서 성평등과 한국문화라는 주제가 나왔고 나는 성평등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많이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다. 지금은 교육 PPT를 짜고 기획해 학교에 허락도 받으러 가야 된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은 이것 말고도 안산에서부터 준비한 경제교육이 있다. 하지만 경제교육은 베트남 현지 상황과 다른 점도 있어서 고치기도 있고 내용이 어려운 건 수정하기도 하고 지금은 보드게임도 조금 수정을 했다.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을 기획도 하고 시연도 했지만, 아직 나의 발표실력은 모자란 것 같아 대본을 꼭 만들고 그 대본을 잘 숙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경제교육이든 성평등, 한국문화든 제일 문제인 것은 언어이다. 우리가 베트남언어가 되지 않아 통역해주시는 분과 같이 가는데 바로 1대1 소통이 아니라 혹시 재미없어할까 봐 걱정이 된다. 하지만 아이들 만나는 것은 설레기도 한다. 빨리 학교에 가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재복's 개인에세이



#한국문화교실?! #나의_편견

처음 한국문화교실이란 것을 가기 전에는 나도 하나의 편견이 있었던 것이 중매를 통한 국제결혼은 뭔가 신부들이 끌려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별로 그 사람들도 안 웃고 할 줄 알았지만, 그 사람 중에서는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자기가 선택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위에 내가 생각한 것은 '하나의 편견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신부들을 보고 또 문묘도 같이 가고 몇 번 밥 먹으러 도가고 했을 때 많이 신부들과 대화를 많이 못 해본 것이 아쉬운 점이다. 또 수료식에서는 또 한 번 느낀 것이 베트남사람들이 정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2주간 같이 생활했다는 것뿐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또한, 몇 번 잠시밖에 못 본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사진을 찍자고도 해주시고 그러한 감사하기도 하였고 다음부터는 우리도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 기수 한 한국문화교실에 간다면 나도 먼저 다가가는 아피가 되어보아야겠다!!

#350PPM의_실종?!...

그렇게 국내훈련 때 350PPM에 대해 배웠지만 별로 실천한 것이 없는 것 같다. 빨래도 세탁기가 있지만 3일에 한 번씩 한다면 빨래가 한 번에 안되어서 2일에 한 번으로 바꾸기도 하고 4층 이하는 걸기로 했지만, 센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잘 지키지만, 가끔 신부교실을 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등 이것에 대한 것은 잘 안 지켜지는 것 같다. 또한, 내가 텀블러를 가져오는 것을 깜박 베트남에서 텀블러를 사게 되었다. 기관에서는 머그컵이 있어 일회용품은 많이 안 쓰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카페를 가면 일회용 컵을 쓰게 되는 것을 보고 조금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텀블러를 샀다!! 앞으로 카페가서도 많이 많이 써야지!! 하지만 베트남어가 안되어 텀블러에 넣어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중에 도전해 봐야겠다!! 다행히 센터랑 집이랑 가까워서 매일 걸어다녀서 다행인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이동할 때 버스를 한번도 안타봐서 10월에는 버스를 도전해봐야겠다!!!!



#한달_간의_베트남_이야기

한 달 동안 나는 베트남에 많이 적응한 것 같다. 이제는 나도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킬 수 있고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갈 수 있고 아주 조금은 베트남어도 알아듣고 간사님들과도 친해지고 센터에도 적응도 한 것 같다. 또한, 여기 내가 사는 하노이 M? inh지역은 한국 사람도 많고 한국 음식점도 많고 발전된 곳이었다. 하지만 아동결연을 갔을 때 나는 베트남의 빈부격차에 대해 심하게 느끼게 되었다. 또한 '내가 너무 우리 지역에만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었다. 나는 내가 사는 지역만 보고 많이 발전했다고 느꼈다. 또한, 나중에 내가 귀국할 때에는 베트남이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을 지도 많이 생각된다. 요즘은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다. 이런저런 고민이 다 되고 그래서 그런지 멍을 때리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다.

또한, 처음 베트남에 와서 3일간은 시간이 정말 정말 정말 안 갔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한 달이 너무 빨리 갔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언어는 거의 1달 동안 많이 배운다고 했지만 나는 아직 베트남어를 거의 못 알아듣고 있고 가끔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아듣는 나를 보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다. 또한, 베트남어를 배울 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덕분에 베트남어가 이 정도가 된 것 같다. 한 달간 라온아피를 하면서 아마 내가 하고 있는 걱정의 반은 언어에 대한 걱정이고 반은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다. 활동에 대한 것일 때도 있고 생활에 관련한 것일 때도 있었다. 또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나눌 것 같다. 또한, 베트남은 화폐단위가 커서 가끔 너무 비싸 보일 때가 있다. 막 음식이 12만동이라고 하면 엄청 커 보이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6,000원 정도 한다. 지금은 이 단위에 익숙해진 것 같다.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있다면 여기서 한식이 너무 비싸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한국에서의 가격이라 나중에 한국에 가면 음식을 사 먹기가 겁이 날 것 같기도 하다.

재복's 개인에세이



또한, 앞에 썼던 그러한 센터에서의 시간, 주말에 신부교실 따라 문묘를 갔던 시간, 롯데센터, 인도츠타를 갔던 시간, 또 아동결연, 집들이 등등의 어디 갔던 시간들,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에 시간이 더 빨리 간 것 같고 특히 나는 문묘랑 아동결연 갔을 때가 제일 좋았고 베트남을 좀 알게 된 시간인 것 같다. 또한 한 달 동안 간사님들께서 우리를 많이 챙겨주시고 많이 다가와 주신 것에 진짜 진짜 감사하다! 나중에 5개월 후에 헤어지는 것이 걱정되기도 하였다. 한국이라면 연락을 해서 만날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라 언제 또 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 해서 지금 베트남에서 더 많은 추억을 쌓고 더 많이 친해지고 그러면서 5개월 동안 후회 없이 보내고 싶다!

#사진을_찍자 #많이많이많이 #9월의_다짐 #마지막_에세이_해시태그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좀 더 사진을 찍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나의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왔지만, 디지털카메라로는 별로 안 찍게 되는 것 같았다. 그래도 10월부터는 더 많은 사진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내가 라온아띠활동을 되돌아봤을 때 이곳의 느낌, 내가 활동한 곳의 느낌을 많이, 많이 담아가서 사진으로 이때의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고 여기에 살았던 그 느낌을 잊지 않도록 사진을 많이, 많이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_결론은_없다 #결론없는_에세이 #10월도_화이팅 #찌아오_파이팅 #CỒ_LÊN
#은근슬쩍_베트남어

사라's 개인에세이



이 사 라

베트남에서의 하루가 길게 느껴졌는데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는 것을 달력보고 나서 실감했습니다. 몇 주전 까지만 해도 앞으로의 날들이 설레고 기대로만 가득 찰 줄 알았던 것들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하다 보니 허망스러운 감정만 남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썼던 일기를 읽어보니 '그때의 나의 포부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물음과 '한 달이 지난 나에게 남은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관계 맺는 법, 사랑을 실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필요 없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배우려 했던 나의 태도는 '지금도 유효한가?'라는 스스로에게 한 질문이 몇 일간 많은 생각을 들게 하였습니다. '라온아띠 국내 캠프' 때 간사님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최근 들어 자주 생각이 납니다. 자발성이 없으면 5개월 동안 한국에서 지낸 것처럼 살다 온다는 그 말과 나의 동기와 목적을 자꾸 되물어보라는 말이 나를 훈련시키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센터에 첫 출근할 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기대가 되었지만,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 미리 걱정도 했었습니다. 원장님과, 국민은행 소장님을 비롯해 센터 직원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잠재되었던 나의 편견들이 조금씩 나타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편견들은 사라지고 센터 직원 분들과 거리낌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사라's 개인에세이



센터에 와서 처음으로 활동한 것은 우물전달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센터의 지역사회개발사업 중 하나가 학교에 우물을 후원하는 사업인데 한국의 교회 단체에서 후원하시는 교인들이 학교 방문일정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여 초등학교 3곳, 유치원 1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역훈련 때에는 역동적인 활동이 드물었다가 베트남 센터에 오자마자 바로 아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한국인이 와서 신기했는지 여럿 무리들이 다가오고 장난을 걸어서 우리도 조금은 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와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단계였지만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서로 이름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태워주면서 장난도 걸었는데 그 때 아이들보다 내가 더 신나있었다는 것을 단원들이 말해주었습니다. 여러 학교를 둘러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활동하게 될 베트남의 학교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교실은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는지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학교 내에 식수대가 없어서 정수기통으로 물을 먹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고, 운동장은 좁았지만 친구들끼리 뛰어 놀며 놀고 있는 아이들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밝은 미소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간사님들과 함께 아동결연방문을 하였습니다. 길가에서 녹차장사를 하시는 어머니와 아프신 아버지를 둔 한 아동을 만났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떤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면서 아동의 일상생활과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라's 개인에세이



성실히 살아가는 아동과 그의 어머니를 보면서 매사에 성실하지 못한 내 삶을 반성하게 되었고, 후원금을 전달하였을 때 그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동결연을 방문했을 때에는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집에 가서 아동과 보호자와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명의 아동들을 만났는데 아이들 대다수가 부모님 중 한 분이 편찮으시거나, 계시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바로 달려오는 아이들이 너무 고마웠고,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애정이 내가 받기에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실천하는 표현의 노력들이 그보다 더한 애정을 받다 보니 오히려 더 그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했습니다. 마지막 간 결연아동이 내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와줘서 고마워요' 였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단지 돈이나, 후원이 아닌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아동 결연방문 할 때에는 준비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더 다가가고 소통하며 전보다 조금은 성숙해진 내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주요 활동인 교육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국내훈련 때 경제교육 활동이 확정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게 되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해서 우리의 활동 일정을 봤을 때 그제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약 2~3주 동안 국내 훈련에서 준비했던 경제교육을 베트남 현지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며 우리가 할 다른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였습니다. 베트남 학생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캠프에서 했던 활동들이 생각났었습니다.

사라's 개인에세이



그들에게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편견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에 대해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때 배웠던 활동을 토대로 조금 색다르게 성 평등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k-pop 말고도 다양한 한국문화를 알려주고 싶어서 문화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몇 차례 간사님들 앞에서 시연을 할 때 마다 PPT에 대한 피드백을 예리하게 집어주시고, 태도에 대한 피드백도 해주셔서 그 분들에게 고마웠습니다. 항상 태도에 대한 피드백이 톤을 높게 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피드백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시연하다 보니 생각이 자꾸 엉켜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화가 나고 짜증났었습니다. 시연할 때 실전처럼 하라고 하셨는데 '학교에 가서 교육 할 때 지금의 모습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 같아 속상했습니다. 거의 막바지 시연 할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계속 연습하다 보니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결과가 나와서 뿌듯했습니다. 마지막 시연 후에 우리들의 교육활동을 피드백하고 통역해주기 위해 봉사클럽, 번역클럽 학생들이 한 프로그램 당 2명씩 짝지어 도와주었습니다. 기회가 생겨 번역클럽에서 대학생들에게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시간을 가게 되었습니다. 두 학생들과 회의를 할 때 전통 놀이인 윷놀이가 어렵다고 하여 걱정을 하였는데 걱정과 달리 번역클럽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서 문화교육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번역클럽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강의와 게임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말해주어서 고마웠습니다. 수업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센터에서의 주요활동인 봉사클럽, 번역클럽은 배움을 원하는 대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서로 교제하는 활동입니다.

사라's 개인에세이



그 둘 중에서 저는 봉사클럽을 하고 싶어서 택했습니다. 봉사클럽을 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활동적인 모임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분위기 속에서 베트남의 문화와 정서를 몸소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한방은 매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 하러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클럽에서 학생들과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재복이는 10월 첫 주에 1차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10월 보고서에서 하겠습니다. Coming soon!

안산 지역훈련 때 조원들이랑 베트남음식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향신료에 연연해 하지 않고 맛있게 먹었는데 베트남에서 먹은 음식들은 향이 너무 세서 먹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베트남 음식이 힘들지만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베트남에서 지내면서 역시 의지할 곳은 팀원들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있거나 생각을 나누고 싶을 때 나를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고, 아프거나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내 곁에 있는 팀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그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소중한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감정이 상할 때도 있었고, 소통의 문제로 불화도 있었지만, 그래도 의지할 사람은 서로밖에 없다는 것을 모두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조원들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들긴 하지만 잘 해결해 나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좀 더 서로가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라's 개인에세이



베트남에 와서 처음 활동하고 난 후부터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가 시작할 때 마다 몸이 무기력해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스스로가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말이 많은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출국 전까지만 해도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한달 간 나에게 어떤 변화가 왔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지난 한 달간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의문점을 갖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도록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라온아띠 활동을 하면 하는 대로, 나의 주체성이 없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관심 있게 행동하고, 얼마큼 보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자각이 부족했다는 점을 알고 난 후부터 내가 먼저 마음을 잡지 않으면 남은 4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보낼 것 같다는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4개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더 꼼꼼이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느꼈습니다.



JJIAO



베트남 하노이에서 맞은 첫째 달

피아오피아오팀

Cảm Ơn

우리가 함께한 9월, 그 속으로!

